

당정 “민생 지원금 전국민 보편 지급… 1·2차 추경 35조원”

당정 정책협의회…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 추가 지원
자영업자 채무 조정…지방에 지역상품권 할인을 높게 설계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 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은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진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정부는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세입경정을 하면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엔 정산하지는 않겠다”며 “지방교부세로 교부돼야 할

대목은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예방을 온 김 원내대표에게 “노조법 2·3조와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권이 거부한 법안들을 여권이 가기 전에 통과시키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내란 사태의 종식과 사회 대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회가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들을 찾아내 역사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과 사회 대개혁 과제를 추진할 정례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청드리며, 국회에 헌법개정특위, 정치개혁특위, 한미통상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추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야, 추경 회동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추경안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당권 ‘친명 대결’ 가시화에 지지층 물밑 경쟁

정청래 출마 이어 박찬대 숙고…권리당원 팬클럽 중심 채팅방 개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 주자들의 대결 구도가 점점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4선의 정청래 의원이 일찌감치 당권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3선 박찬대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함께 점쳐지자 18일 양측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있다.

이재명 1기 지도부 최고위원을 거쳐 최근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박 의원 역시 당 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당 대표 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종면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가) 2파전이 될지, 3파전이 될지, 더 될지 그건 알 수 없다”며 “(정 의원·박 의원 외에) 지

금 검토하는 분이 계신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구도가 차츰 윤곽을 드러내면서 친명계가 주축을 이룬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지난 15일째부터 박 의원을 당 대표 후보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연판장이 공유됐으며, 박 의원 팬클럽을 중심으로 200~300여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채팅방도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팬클럽 역시 ‘이재명·정청래 수호천사 모임’이라는 200여명 규모 카카오톡 채팅방을 최근 개설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승패를 가를 결정적 요인인 권리당

원들 사이에서 비방전 등 과열 현상이 나오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문석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정청래와 당 대표 후보 정청래는 다른 사람이나”며 정 의원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가 “수많은 댓글을 읽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당 대표에 대한 시각의 다양성을 확인한다. 제 글도 하나의 의견으로 읽어달라”고 추가 해명을 올렸다.

최민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박찬대 전 대표가 당 대표에 출마할 것 같다. (정 의원과 박 의원) 둘 다 소중한 민주당 자산”이라며 “각자 지지하는 후보의 매력을 홍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외교·국방·정보위 줄테니 법사위 달라”

국힘 의원들, 국회서 기자회견…원 구성 재협상 요구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중·신성범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면 자신들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 국방, 정보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 정부가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법사위 소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동안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등 통과되지 말았어야 하는 악법들이 제지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민주당의 법사위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앞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분열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속히 다시 돌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여야, 총리 인사청문회 앞두고 설전

국힘, 불법정치자금 의혹 등 공세…민주 “근거 없는 의혹 치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자금 의혹을 둘러싸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맹목적인 정치 공세”라며 엄호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며 후보자의 명

예를 짓밟고 있다. 비열하고 치졸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는 지인과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추정금과 세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사적 채무’라고 명확히 했다”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국정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

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는 수사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많은 국민께서 도덕적 의혹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인지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 ‘10대 결격 사유’가 있다며 거취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10대 결격 사유’에는 ▲강신성 씨 등과의 금전거래 의혹 ▲아들 흥풍대 입학 관련 논란 ▲아들 고교·대학 학비 출처 ▲김 후보자 청와대 석사 학위 관련 논란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오는 24~25일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